

SK NJC, DMCD 80톤 일본 수출

Asahi Kasei와 80톤 공급계약 ... 맞춤형 원료 생산·수출 박차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 NJC는 일본 의약품기업 Asahi Kasei에 잇몸지혈제 원료 DMCD(Dimethyl Cyclohexanedicarboxylate) 80톤 상당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월23일 발표했다.

SK NJC 관계자는 “공급되는 DMCD는 플라스틱 등 도료용 폴리에스터(Polyester)의 첨가제로 사용돼 왔고, 열 안정성과 내식성이 뛰어나며, 혈관 기능을 보존하는 의약 첨가제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용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원료를 생산하고 수출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계약을 계기로 유럽 의약품 원료시장을 노크하는 등 신규 시장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25>